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신경과 김동억, 류위선 교수, '뇌 건강나이' 를 이용한 뇌경색 예후 예측 기술 개발



신경과 김동억 교수(책임저자), 류위선 교수(1저자) 연구팀은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대학병원 및 국가참조표준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인 허혈뇌지도를 이용하여 판정한 '뇌 건강 나이'로 뇌경색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14년 김동억, 류위선 교수가 최초로 개발한 허혈뇌지도는 만성 뇌혈류 순환장애로 인한 뇌허혈 손상의 정도를 등급화한 국가참조 표준자료이다. 뇌경색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MRI 촬영 후 한국인 뇌허혈 뇌지도를 참조하면 뇌 건강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 수행된 '예후 예측 연구'에서는 전국 급성 뇌경색 환자 5,035명의 뇌 MRI 영상과 임상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김동억 교수는 “뇌졸중은 한국인 6명 중 1명이 발생하며 사망률과 영구 장애율이 매우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한국인 허혈 뇌지도는 전국 110여 개 병의원에 배포되어 뇌경색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 뇌경색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브레인(Brain, IF:10.1) 2017년 1월 호에 게재된다.

02 안정병동 화재 대비 대피요령 훈련 실시

화재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관리팀은 특수간호팀과 11일 121병동에서 병동 내 화재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폐쇄병동의 특성상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환자대피 상황이 일반병동과 차별된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거동이 어려운 침대 환자의 대피시간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 보완하는 동시에 환자를 더욱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안정병동의 화재 발생 시 환자 유형에 맞는 안전한 대피방법과 대피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화재대응 능력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03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류위선 교수는 지난 16일 마두동 성당에서 높은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류 교수는 강좌를 통해 뇌졸중은 우리나라 한 해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5분마다 뇌졸중 환자 발생, 20분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원인이 되는 위험한 질환임을 설명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복부비만, 흡연, 심장병, 당뇨병 등 기초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뇌졸중 예방관리로 평소 혈압체크를 자주 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혈압 강하 효과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관리, 식생활개선, 저염식, 운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일산동구보건소와 함께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04 외래간호팀 '호프데이' 행사 개최

외래간호팀은 11월 15일 간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외래간호팀 노하우 공유의 장 & 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노하우 공유의 장은 외래간호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며 동료 간에 위로하고 칭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내원객과 동료에게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응대하는 직원 6명을 선발하여 '베스트 스마일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외래간호팀 직원들의 동료애 강화를 위한 '자신감 있는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자리도 마련됐다.

환자 응대로 감정 노동이 많은 간호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방법, 긍정과 감사하는 태도가 가져오는 행복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호프데이 행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스마트 Tip⁺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관리안내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록 서류를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업무시간 중에 수시로 사용하는 진료기록은 잠금장치를 해제한 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

사랑으로 베푸는 모습이란

병원에 입원한지도 벌써 2주일이 넘었다. 지치고 힘든 병원 생활이지만 매번 주사와 약 등을 잘 설명해 주는 101병동 김윤희 간호사가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난다.

늘 잘 주무셨어요? 어제는 편안하셨나요?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특별히 불편한 곳은요? 기분은 어떠세요? 식사 잘 챙기세요. 누가 보고 싶으세요? 등의 질문을 해 주는 모습은 관심과 사랑이다. 무엇보다도 김윤희 간호사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즉시 대답을 해 준다.

말로서 머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긴 병에 지치고 힘든데 다정하게 다가와 주는 모습은 사랑으로 베푸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알 리 미

한방무료진료 안내 장소: 식사동 SK뷰 아파트 경로당 | 일시: 11월 23일(수) 14시